국회 예산안 대치… 비쟁점법 16건만 처리

민식이법 등 처리하고 스톱
3당 원내대표 예산안 줄다리기
與, 결렬시 '4+1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 법' 등 16건의 안건만 통과된 후, 정회됐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돌입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 역시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지만 한국당이 철회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저녁 7시 현재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막판 접점 모색에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 부터 만나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원안에서 2조원가량을 순삭감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점차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에게 "많이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3당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3당 협상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등 실력행사를 통해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후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4+1'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애 인사 청문회 이달내 개최

靑, 오늘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으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대립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추 후보자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난 5일 당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이로 인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청와대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신군부 축적 재산 몰수법 발의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권력 이용 불법취득 재산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정 축재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일반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어 몰수나 추징이 용이하지 않다"며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23일 출국

한반도 문제·수출 규제·지소미아 해법 도출 주목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도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터여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총선 광주 광산을 출마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 사람에게 광주의 경제를 책임지울 수 없다"며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쌓아온 경제 산업 전문가로서 경험과 인맥, 열정을 가진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전남우정청장,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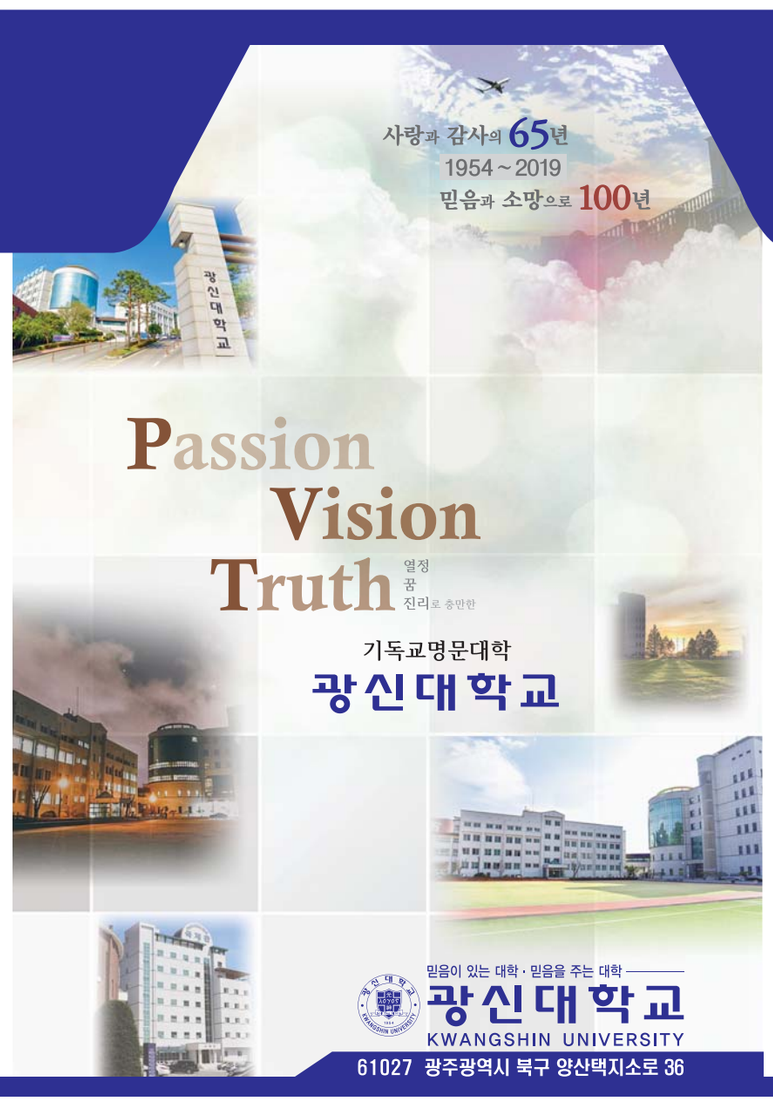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7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